나에게 있어 사회봉사란, 그저 학점을 채우기 위해, 졸업을 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과목일 뿐 이였다.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었던 많은 교양들과 마찬가지로, 사회봉사 학점을 채우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, 여유롭게 학점을 챙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나에게,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온라인 사회봉사는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다.

‘과연 이 온라인 사회봉사가 의미가 있을까? 그래도 학생들 졸업은 시켜야 하니까 어떻게라도 점수를 주려고는 하는구나’ 라는 생각이, 이 사회봉사를 수강 신청하면서 들었던 첫번째 생각 이였다.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,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있어 사회봉사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, 그래도 어쨌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영상을 수강하고 소감문만 제출하면 끝나는 사회봉사 온라인 수강은 나에게는 매우 가치없는 컨텐츠이자, 동시에 학점을 채우기만 바라던 내 자신에게는, 흔히 말하는 꿀강이였던 것이다. 이러한 생각은 15번의 사회봉사 강의를 들으면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.

결론적으로, 이 15번의 사회봉사 강의는, 그 강의를 들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지만, 내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던 사회봉사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, 이를 대하는 나의 진실한 마음을 바꾸어 놓음에는 매우 효과적이였다. 단순 학점을 채우는 도구라고 생각하고, 정말 의롭고 남을 위해 제 한몸 희생하는 고결한 이들만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, 봉사는 내 삶과 거리가 멀다고 사고하던 그 과정을, 나도 오프라인으로, 사람들과 만나가며 사회 봉사를 하고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 것을 보면 말이다..